



김승수 전주시장이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착한 임대료·재난소득 지급 전주발 상생 정책 확산

전북 전주시에서 쏟아 올린 영세업자를 위한 임대료 인하 운동과 취약계층을 위해 전국에서 처음 지급한 재난기본소득 정책 등 '상생 모델'이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전주시를 모범사례로 언급하기도 했다.

전주시는 저소득층 5만명에게 1인당 52만7천원씩 총 263억5천만 원을 지급하는 긴급 생활 안정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 예산을 확보, 4월부터 전국 최초로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돕고 있다.

앞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기로 한 전주시를 언급하면

서 "국난 극복을 위한 국민의 지혜가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전주한옥마을에서 시작돼 전통시장·구도심·대학가 등 전주시 전역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한 착한 임대 운동에 대해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협력 모델로 언급하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주시와 시민들께 박수를 보낸다"며 칭찬행렬의 포문을 연 것을 시작으로 경제부처 합동 업무 보고와 31절 기념식에서 각각 전주발 착한 임대인 운동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협력 우수사례로 언급했다. 대통령이 이처럼 한 지자체를 연이어 모범사례로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전주발(發) 코로나19 극복 정책은 이미 전국 지자체로 확산해 활발



1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지원을 위한 선불카드인 '함께 하트 카드' 2 착한 임대료 비대면 협약 체결 3 한옥마을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인하는 상생선언을 하고 있다. 4 시민들이 전북은행 본점에서 '함께 하트 카드'를 발급받기 위해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히 추진되고 있거나, 향후 국가사업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급물살을 타고 있다.

고통 분담 '착한 임대료'도 나비효과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된 임대료 인하 분위기도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정치권과 정부도 지원책 마련을 추진하는 등 힘을 보태면서 '착한 임대료'가 경제 전반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착한 임대료' 운동은 건물주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는 것으로, 건물주와 세입자의 상생이라는 화두를 던졌다.

한옥마을 건물주 10여명은 지난 2월 12일 코로나19 극복과 한옥마을 발전을 위한 상생 선언을 통해 임대료를 최대 20% 인하하기로 했다.

전주 전통시장과 옛 도심 건물주 60여명도 자발적으로 5~10년간 임대료를 동결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상생협약을





김승수 전주시장

세입자들과 체결하는 등 ‘착한 임대료’ 바람이 전주 전역으로 빠르게 퍼졌다. 이런 전주발 ‘착한 임대료’ 운동이 봄기운을 타고 지역을 넘어 전국으로 번지고 있다.

서울 남대문시장 상가의 건물주들이 앞으로 3개월간 임대료의 20%를 인하해 주기로 자발적으로 결정함에 따라 상인 2천여명이



부담을 다소 덜게 됐다.

수서고속철(SRT) 운영사 SR은 역사 내 임대매장에 3개월간 임대료를 20% 인하해 주기로 했다.

IBK기업은행도 자사가 보유한 건물의 임대료를 오는 3월부터 3개월간 30% 인하(월 100만원 한도)하기로 했다.

한국철도(코레일) 역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철도역 매장의 임대료를 20% 인하하는 등 긴급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도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경제활력 제고 대책을 내놓았다. ‘지역 상권 상생발전법’ 제정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경제 위기는 돈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내가 힘들 때 누군가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회적 연대, 즉 착한 임대운동과 재난기본소득을 통해 전례 없는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착한 임대 운동이 점점 나비효과를 일으키고 있다”며 “임대료 인하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확산해 사회·경제적 재난을 극복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동력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